

[정규과정] 재미있는 영화읽기

주제 : 여성 영화가 온다

어느 때보다도 젠더 이슈가 뜨거웠던 2018년,
한국 영화계 여성영화를 짚어봅니다.

튜터 김신정

1. 미쓰백 감독 이지원 / 출연 한지민, 김시아, 이희준



스스로를 지키려다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되어
외롭게 살아가던 백상아.
누구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마음에 두지 않던
어느 날, 나이에 비해 작고 갸름한 몸,
흠집 옷을 입은 채 가혹한 현실에서 탈출하려는
아이 ‘지은’을 만나게 된다.
왠지 자신과 닮은 듯한 아이 지은을
외면할 수 없는 상아는 지은을 구하기 위해
세상과 맞서기로 결심하는데….

여성 감독과 여성 배우들이 만나 좋은 시너지를 낸 작품으로,
뒤늦게 입소문을 타 역주행에 성공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겨
최종 관객 수 72만 명을 기록하였다.

배우 한지민은 이 작품으로
청룡영화제, 영화평론가협회상, 한국영화제작자협회상 등에서
여우주연상을, 여성영화인상에서 연기상을 받았다.
이는 데뷔 15년 만에 받은 첫 주연상으로,
눈물의 수상소감이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.

2. 리틀 포레스트 감독 임순례 / 출연 김태리, 류준열, 문소리



시험, 연애, 취업... 뭐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
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은
오랜 친구인 재하와 은숙을 만난다.
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 끼 한 끼를 만들어
먹으며 겨울에서 봄, 그리고 여름, 가을을
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이하게 된 혜원.
그렇게 특별한 사계절을 보내며 고향으로
돌아온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된 혜원은
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데...

임순례 감독의 4년 만의 복귀작으로 주목받은 <리틀 포레스트>는
보석 같은 배우 김태리가 합류하면서 힘을 보탤다.

손익분기점 80만을 훨씬 넘겨 150만이 넘는 관객 수를 기록하였다.

사계절의 풍경에 다채로운 음식이 선사하는 볼거리가 더해져 많은 사랑을 받았다.

배우 김태리는 이 작품으로 한국영화감독조합의 감독들이 직접 뽑는
디렉터스컷 어워즈에서 올해의 여자배우상을 수상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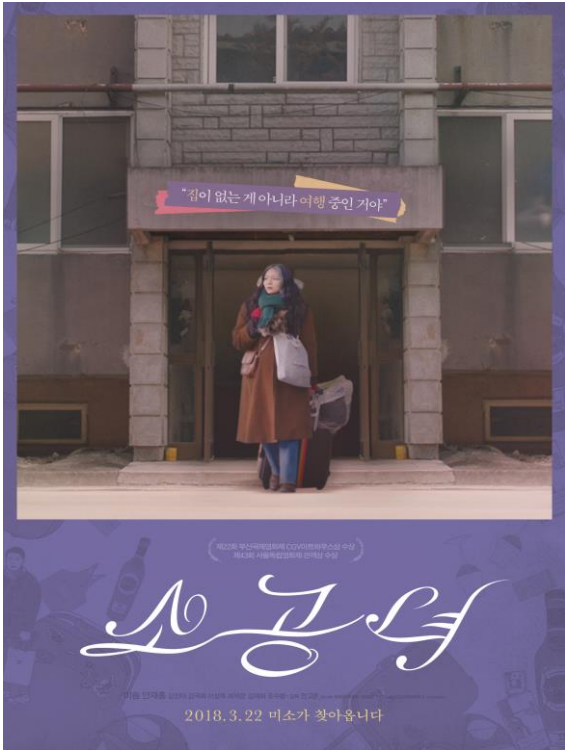
3. 허스토리 감독 민규동 / 출연 김희애, 김해숙, 예수정



“이겨야죠!
이겨야 할매들 분이 안 풀리겠습니까?”
1992~1998 6년의 기간,
23번의 재판, 10명의 원고단,
13명의 변호인!
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며
일본 재판부에 당당하게 맞선 할머니들과
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
뜨거운 이야기가 시작된다!

2018년을 뜨겁게 달군 여성영화 중 <허스토리>를 빼놓을 수 없다.
위안부 관부재판 실화를 다룬 영화 <허스토리>는 남성 감독의 영화지만
균형 잡힌 시나리오와 여성 배우들의 열연으로 주목을 받았으며
‘허스토리언’을 자처하는 젊은 여성 관객들을 중심으로 단체관람 요청이 쇄도했다.
33만이라는 관객 수만 놓고 보면 초라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
많은 ‘허스토리언’들이 <허스토리>의 의미와 성과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.

4. 소공녀 감독 전고운 / 출연 이솝, 안재홍



하루 한 잔의 위스키와 한 모금의 담배,
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친구만 있다면
더 바라는 것이 없는
3년 차 프로 가사도우미 ‘미소’.
새해가 되자 집세도 오르고
담배와 위스키 가격마저 올랐지만
일당은 여전히 그대로다.
좋아하는 것들이 비싸지는 세상에서 포기한 건
단 하나, 바로 ‘집’.
집만 없을 뿐 일도 사랑도 자신만의 방식으로
살아가는 사랑스러운 현대판 소공녀 ‘미소’의
도시 하루살이가 시작된다!

독립영화계의 흥행 기준 1만을 훨씬 넘어,
5만 9천여 관객을 만나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영화 <소공녀>는
감독 전고운의 장편 연출 데뷔작이다.
매력적인 캐릭터와 개성 있는 연출로 주목받았으며
<여성영화인 상>에서 각본상을, <청룡영화제> 등에서 신인감독상을 수상하였다.

5. 어른도감 감독 김인선 / 출연 엄태구, 이재인, 서정연



열네 살 경언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
생면부지의 삼촌 재민을 만난다.

얼치기 사기꾼 재민은 경언 앞에 남겨진
보험금을 모두 잃고,
두 사람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
동네 약사를 상대로 부녀를 가장한
발칙한 사기극을 벌이게 된다.

〈어른도감〉은 신예 김인선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,

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일찌감치 기대를 모으며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하였다.

동 영화제에서 넷팩상을 수상하였으며, 제20회 정동진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였고,

2018 시카고아시안팝업시네마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다.

주연배우들 간의 호흡이 좋고 연출자의 감각이 뛰어난 작품으로,

감독의 차기작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.

<자료 출처 및 참고문헌>

네이버 지식백과 : 여성영화 <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349785&cid=42617&categoryId=42617>

네이버 영화 <https://movie.naver.com/>

인권영화 ‘메기’ 부산국제영화제 4개 부문 수상 <http://www.mindpost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06>